

# 서울시, 한강 위 떠있는 호텔 짓는다... 7년간 5500억 투입

##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오세훈 시장 “수상 이용 활성화 먹고 자는 일상공간 자리매김”

케이블 수상스키장 조성하고 선박계류시설 1000석까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2030년까지 총 5501억원(민간 3135억원·재정 2366억원)을 들여 한강에 수상복합 인프라를 설치해 시민 천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상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강의 수상 이용을 활성화해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특별한 날, 주말에만 가는 곳이 아닌 먹고 자는 일상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한강을 여가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한강을 성장의 거점, 도시 말해 경제 발전의 터전으로 삼을 것”이라며 “수상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한강을 일상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수상호텔·오피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리버시티, 서울 종합 계획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푸드존을 만들고,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리버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상호텔은 한강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시설로 조성한다. 숙박·여가·컨벤션 기능을 갖춘 수상호텔에서 투숙객에게 선박 픽업, 유람선 투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한다는 복안이다. 한강의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일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게 수상오피스를 띄우고, 강의 아름다운 조망을 배경으로 공연 문화를 즐기는 먹거리 랜드마크 수상푸드존도 마련한다. 마곡·

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리버버스는 오는 10월부터 한강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올 7월 이용이 저조한 수상택시를 없애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한강을 여가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누구나 한강에서 수상스키를 체험할 수 있게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만들고,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케이블 수상스키장은 보트에 줄을 달고 타는 기존 방식이 아닌, 높은 탑처럼 설치된 케이블을 활용해 수상스키를 즐기는 시설이다. 간단한 장비만 착용하면 초보자도 안전하게 탈 수 있으며, 다양한 묘기 연출이 가능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한강 내 노후시설물 정비시 연면적과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한강 내 유류 도선장 26개소 가운데 14곳(54%)이 20년 이상됐다”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노후시설물 개선을 유도,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선박 계류시설과 마리나 복합시설 확대로 한강을 도시 성장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소유 시민이 증가하는 ‘마이보트 시대’에 대비해 현재 130선석에 불과한 선박 계류시설을 단계적으로 1000선석까지 늘리고,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 더해 이촌과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지어 수상복합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일상 공간·여가 중심·성장 거점 조성을 골자로 하는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6445억원의 생산과

효과, 2811억원의 부가가치효과, 6845명의 취업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강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10여년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반발에 부딪혔던 부분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한강의 친환경적 수변생태계는 매우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공호안이 자연형호안으로 바뀌며 전체 57.1km 중 약 83%인 47.5km 구간이 복원됐다”며 “나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38만주 더 식재됐고,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해져 수달 가족이 노닐면서 청계천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수상 이용이 활성화되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반환경적인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태계 복원으로 탐사르 습지로 지정된 밤섬 일대에선 선박을 150m 이상 이격해 운항하고 유람선의 속도도 8노트 이하로 관리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oul.co.kr

## 출생아 수 16개월째 줄어 2만명 아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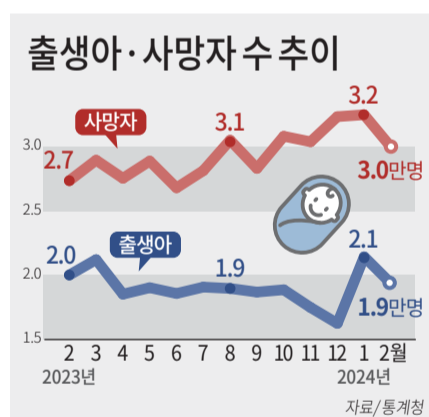
### 통계청, 2월 인구동향

출생아 수 1만9362명, 3.2% 줄어 ‘사망’ 출생 1만615명 자연감소

올해 2월 출생아수가 전년동월대비 줄어들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보여 인구 자연감소분이 1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96건(-5.0%) 줄었다. 2021년 1월 이후 월 2만 건을 밑돌던 혼인 건수가 올해 1월 2만 선을 회복했으나 다시 밑돌았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보다 0.3건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구와 전북 등 3개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반면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전년보다 128건(1.8%)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지난해 2월과 같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혼 건수는 올해 2월이 지난해 2월 대비 하루 더 많은 영향으로 1월에 급증하고 2월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2월을 합산하면 조혼인율은 3.3, 조이혼율은 5.7로

평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월 출생아수는 1만936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줄었다. 월별 출생아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다 올해 1월 2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만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같은 달 대비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 2022년 9월 13명(0.1%) 소폭 늘어난 후 다시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사망자 수 증가폭은 2월 기준 역대 최대다. 2월 사망자 증가율은 지난 2022년 9월(13.9%) 이래 18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1만615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내일 KRX서 ‘재생치료제 포럼’ 열어

» 1면 ‘글로벌 오가노이드’서 계속

류이치 오카모토 도쿄 의과치과대학(TMDU) 교수 역시 한국을 찾는다. 류이치 교수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 지난해 난치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유럽 바이오메드계의 거물’로 꼽히는 안드레 거스 대표도 참석한다. 그는 세계 최초의 동물대체시험 플랫폼인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으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첫 파트너사로 선택한 바 있다.

ODC조직위원회는 “ODC는 세계를 대표하는 오가노이드 개발자들의 모임으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의 오가노이드 기술력이 글로벌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에는 (사)첨단재생의료산

업협회 주최로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이 열린다.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짚어볼 전망이다.

이 포럼은 오가노이드의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을 중심으로 다룬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며 다양한 정부 지원과 함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가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의 주제로 맡는다. 미리어드생명과학은 제약·바이오 특화 전략자문사로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출범 유망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기획, 발굴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다이소 “플라스틱·과포장 축소활동 진행”

» 1면 ‘가성비 으뜸 다이소’서 계속

업계에서는 다이소만의 환경, 품질을 위한 활동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기에 국가의 다양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가 등 국가경제가 힘들때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다이소가 보다 적극적인 ESG활동을 강화할 때가 됐다. 국내 토종기업인 다이소가 국내 환경과

통업계를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플라스틱 포장으로 된 상품들을 종이재질로 변경하거나 과포장을 축소하는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포장재 개선 활동을 통해 작년에는 총 800여 종의 상품 포장 개선을 진행했으며 약 96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소는 1997년 서울 천호동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1519군데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과 경기도 용인의 물류센터에 이어, 최근 안성 물류센터를 새롭게 임대했으며 2026년 말까지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세종시에 허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다이소몰’과 ‘샵다이소’를 통합한 새로운 다이소몰을 열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익일배송 서비스 등 온라인 영업도 강화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연체채권 정리 강화... 3월 연체율 하락 전망

» 1면 ‘고금리 장기화...’서 계속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가계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취급 신용점수는 919.5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98.6점에 비해 20.9점이나 오른 수치다.

금감원은 3월에는 연체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 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